

노래하는 사람 Joy of Singing

1. 김가람, 4ROSE.NET, 웹사이트 (녹화기록: 6분 30초), 2021

김가람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대중의 목소리를 월간 <4ROSE>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가상의 걸그룹 <4ROSE>는 매월 이슈가 되었던 시의성 담긴 뉴스 기사의 댓글을 가사말로 옮겨 리드미컬한 배경음악에 맞춰 4가지 기계음으로 읽어준다. 동시대 한국 사회 대중 담론의 궤적이 담긴 <4ROSE>는 현재까지 2개의 정규앨범과 83개의 디지털 싱글이 발매되어 애플 뮤직(아이튠즈)을 비롯한 멜론, 벅스 등의 음원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 김가람의 신작 <4ROSE.NET>(2021)은 지난 한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코로나 팬데믹부터 비트코인과 투기 열풍, 그리고 한일 관계와 북한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주제의 카테고리 안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대중의 관심사와 그 변화의 양상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하나의 주제 안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작업 감상의 주요 지점이다. 작업 형식은 4ROSE.NET으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로, 흑백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크롤링으로 이동 가능한 웹툰의 전개 방식을 차용해 상하의 연대기를 보여준다. 전시 기간 동안 <4ROSE.NET>은 전시장 안팎 공간에서도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관객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여 듣고, 해당 음원의 출처(기사 및 댓글)를 클릭/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에 설치된 영상은 작업을 감상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작가가 직접 웹사이트를 감상한 녹화 기록을 6분 30초 분량으로 편집했다.

2. 듀킴, 우리의 밤이 미래가 될 때까지 ☆ Kiss of Chaos, 싱글 채널 비디오, 4분 18초, 2020,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으로 제작

듀킴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퀴어와 젠더의 개념을 샤머니즘의 시각으로 탐구한다. 과거 서구인들에 의해 '흑신앙black faith'이라 폄훼하여 불리던 북아시아 주술-종교인 '샤머니즘'의 또 다른 비하적 표현인 '사물을 보는 낡고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작가는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사고체계가 종교에서 파생된 '분리'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작가는 서구 종교적 관점에서의 동성애 박해와 이에 대립되는 한국 무속신앙의 주술적 수행과 그 역할을 탐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샤머니즘 의식의 퍼포먼스에 주목하며 퀴어와 젠더, 나아가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야기를 K-pop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보여준다.

3. 듀킴, As You Wish, 싱글 채널 비디오, 혼합재료, 7분 17초, 2021

주술적 의미를 가진 K-pop 노래들을 모아 부른 뮤직비디오 작업이다. 작가의 목소리와 몸을 통해 다시 구현되는 K-pop은 이분법적 관성의 세계에서 실패자의 존재가 가진 욕망을 드러낸다. 작가는 대중문화에서 점유되는 정상성을 향해 움직이는 문화들을 차용한다. 작업 안에서 아이돌이 되어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이질감, 괴상함, 불편함을 통해 정상성을 분열, 해체시키고 다시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퀴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4. 안광휘, **Remix: Greatest Hits of The Pathetic Rhymes,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12개 사운드 트랙), 37분 23초, 2021**

작가가 직접 제작한 힙합음악 중 선정한 10곡에 미공개 신작 2곡을 추가해 만든 일종의 믹스셋 Mix set이다. 2017년에서 2021년에 걸쳐 제작된 각각의 곡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와 어조로 작가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에 대한 반응 방법을 그려낸다. 힙합 음악과 현대 미술을 비교해보며 작업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 특히 전시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공유하는 익명의 개개인이 음악을 통해 같은 문제의식과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각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작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진 전시 관람 환경을 좀더 극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의도해 연출되었다. 좌석은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고, 공용 헤드폰 대신 관람객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게 된다. 또한 전시장에서 보는 음악과 전시장 밖에서 듣는 음악을 동시에 제공하여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재생 방법: 관람객 개인의 휴대폰으로 와이파이 pathetic_wifi 연결 후 화면의 QR코드에 접속한다.

5. 이현중, **잼앤쿡Jam and Cook, 사운드, 설치, 1분 30초, 2021**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전시명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랩과 턴테이블의 역사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사운드, 설치 작업이다. 힙합, 디스코, 하우스, 그리고 테크노(독일과 다른시기에), 엠비언트, 펑크가 언더그라운드 음악 씬에 등장하기 이전에 반주 기반의 리믹스(버전 version), 덱 플레이트dub plate와 랩(토스팅toasting)이라는 시도와 개념은 자메이카에서 시작되었다. 흔히들 우리가 아는 디스크 자키Disc jockey는 자메이카에서는 셀렉터Selector라고 부르고, 랩퍼rapper는 디제이Deejay라고 칭한다. 자메이카의 디제이들은 기존의 보컬이 있던 곡이 아닌, 테스트 프레싱용으로 찍힌 덱 플레이트들의 하찮게 여겨진 반주 버전의 곡을 주로 재생을 하며 즉흥적으로 토스팅 한 것이 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뿌리이다. 그리고 더해진 상상력은, 그들은 이동/출장형 주방 겸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 하여, 인파가 많은 길거리에서 음악을 깔고 토스팅을 하여 이목을 끌어 음식을 팔았다. 전문 음악인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요리를 하며 음악을 하여도, 디제이들과 셀렉터들에게 현대 음악에 미친 공로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잼앤쿡>은 자연스럽게 2021년과 어울리는 발상으로 제작 되었다. 해당 작업은 3가지의 영상 재생 버튼이 있는데, 관객들은 작업에 내장된 이펙터의 딜레이Delay (지연-에코)와 리버브Reverb (울림-확장) 기능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자메이카식 덱Dub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6. 폴린 쿠르니에 자르뎡, **그로타 프로퐁다Grotta profunda, 싱글 채널 비디오, 30분, 2011**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인 베르나데트 수비루Bernadette Soubirous(1844-1879)는 프랑스 루르데스 Lourdes의 마사비엘 Massabielle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 Virgin Mary 발현을 경험한 가톨릭 성인이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알린 여성들은 주로 상류층들이었으나, 베르나데트는 시골에서 자라며 가난한 유년을 보낸 배경을 지녔음에도 드물게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여성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작가는 사회적 소수자였으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정을 받은 여성들에 주목하여 그들을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로부터 해방된 더욱 자유로운 존재로 표현한다. 작가는 베르나데트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동굴을 헤메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 젠더의 구별 등 다양한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다의성 Polysemy를 가진 낯선 모

습들을 등장시킨다. 의미를 부여하는대로 그것이 되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낯선 존재들은 동굴 안에서 서로 어울려 자유로이 춤을 춘다.

7. 폴린 쿠르니에 자르뎡, 혼자만의 살롱Le Salon d'Alone, 싱글 채널 비디오, 혼합재료, 30분, 2008-2010

<혼자만의 살롱Le Salon d'Alone>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인류이자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과거 동물 병원이었던 곳을 보금자리 삼아 홀로 생활한다. 대화가 가능한 누군가를 찾기 위해 잠시 외출한 사이, 거실에 있던 물건들이 각자 자신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8. 츠바사 카토, 우드스탁 2017, 싱글 채널 비디오, 기타 앰프, 4분 7초, 2017

1965년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는 우드스탁Woodstock에서 미국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를 연주했다. 이 공연은 히피 운동, 반전 운동, 그리고 시대 전반에 걸친 대항 문화counter culture의 상징으로 읽힌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연대해야 할지, 무엇을 해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있다. 소셜 미디어가 유일한 토론의 장이 되어버린 지금, 과거의 우드스탁 공연의 향수를 느낀다. <우드스탁 2017>은 1965년 공연을 재연하는 헌정 공연이다. 작업 속 네 명의 백인 퍼포머들은 고무줄로 묶여 서로 방해물이 된 채 국가를 연주한다. 네 명의 퍼포머들은 연주의 용이성과 퍼포머의 수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를 연주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타인의 일상을 엿보면서도 우리의 일상 역시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창구들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자기 표현의 방법을 제공하는 한편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 <우드스탁 2017>은 '연결'과 '구속'의 딜레마를 풍자하는 동시에 그 사이에서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